

한국의 가정과 교사교육 -도전과 전망-

박 명 회(동국대학교 교수)

I. 문제의 제기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속도에 따라 국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견해와 함께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정보격차에 따른 정보부자와 정보빈자의 갈등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운명이 교육의 질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고, 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방안이 나오고 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시작된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7차 교육과정개정이 결정되어 2001년부터 드디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이 7차에 걸쳐서 개정되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교육과정에 맞는 교사의 양성이 과연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어느 사회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질 향상이나 교육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나 이를 재빨리 수용하고 현실

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원양성과 임용제도에 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정과 교사양성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정교과의 변화과정에 따라 교사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거시적 관점과 현실적 문제를 파악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양성과 임용제도의 변화

본 고에서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찰하기에 앞서 지난 95년부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한 중등 교육개혁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교육체제의 개혁을 위한 중등교육과정의 혁신

지난 1995년 5월 발표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보고서에 의하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혁의 배경과 방향을 기존의 교육체제인 산업화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양성인 단순기능인, 단순지식인을 대량 육성하는 교육체제에서, 질을 중시하는,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을 다양한 영역별로 소량 육성하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을 ①학생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②학생의 개성신장과 창의적 성장을 극대화한다. ③학생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⑤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개혁의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1995년 교육개혁을 기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전까지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대체로 4차 교육과정 실시시기인 1987년까지 가정교과는 여

학생만 이수하는 교과였으며 5차 교육과정 개정시점인 1987년부터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를 남녀 구분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하도록 변경하였다. 6차 교육과정 실시 시기인 1992년부터는 기술·산업 과 가정을 남녀 모두에게 공동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교과목을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한 교과로 하여 국민 공통 기본교과인 10대 교과에 편입시켰다.

3. 가정과 교사의 양성과 임용제도의 변화

교원 양성·임용제이란 전문직업으로서 교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체제와 교직사회에 새로운 인적 자원을 충원하는 제도로서 교사양성체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폐쇄형이란 교사양성을 위한 특별교육기관(교육대, 사범대등)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제도이고, 개방형이란 일반 교육체제 내에서 양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절충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과 교사는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가정과 교사를 양성하고 전국적으로 가정교육과가 20여개 대학에 존재해 왔으며 1950~1970년대까지는 국립사범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장학금으로 유치하고 교사를 양성하여 우수한 교사를 전국적으로 고루 배치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 왔었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과 교직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사립사범대학이 설립되고 사립 사범대학에서도 상당량의 교사를 배출하였으며 가정과 교사는 70년대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가정대학에서도 다양한 전공자들 중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획득하여 교사를 배출하였다.

1980년대부터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수는 급증하였으나 교직수요는 증가하지 않아 교사로의 취업은 매우 어려워 졌다. 정부는 이러한 교직수급 불균형을 대학의 교직과정 인원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해결은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 교직공급자인 교직이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으나 교직수요는 한정적이므로 이 시기부터 국, 공립학교 교사채용은 임용고사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가정과 교사 양성체제는 가정과 관련학과인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에서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분야별 교과목을(6개 분야) 이수하면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90년대 들어서부터 정부는 교직이수자의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가정교육학과를 제외한 타 관련학과의 경우 일정 %만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Ⅲ. 가정과 교사의 교사교육

1. 가정과 교사의 자격

가정과 교사의 자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신규 채용 후 5-10년 이내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을 이수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도록 되어있다. 더 이상의 의무적 연수는 없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일반연수로 60시간 분의 연수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다(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1994).

■ 중등학교 가정과 1급 정교사

- 중등학교 가정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가정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가정과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가정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가정과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가정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졸업자
-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가정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
- 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식생활학과), 의류지물학과(의생활학과, 의류학과), 소비자·아동학과(학부제 실시대학의 경우, 생활과학이나 가정계열)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대학 졸업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가정과 준교사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이연숙, 2002)

2. 가정과 교사 양성교육과정

앞에서 제시된 가정과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과거 다양한 경로로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가정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가정교육과 졸업 교사이거나, 가정 또는 생활과학대학에서 관련학부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획득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초, 중고등학교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은 명백한 일이다(이연숙, 1994). 가정과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과 가정과 교사 자격증 취득학과들의 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정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을 기르는 교과목의 교과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연숙, 1994). 특히 가정교육과가 아닌 생활과학대학 또는 가정대학의 관련학과의 경우 최소한의 교과목으로 관련분야의 한 과목씩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들어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분야는 개정되어 교과교육영역, 영양학, 식품과 조리,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주거와 실내디자인, 가정경영, 소비자학, 아동학, 가족학 등의 기본 이수 영역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0-1호에 의거).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6개 영역을 전공과목에 고루 강좌를 배정하고 각 영역의 균형을 이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의류직물학과, 소비자 아동학과, 또는 소비자 주거학과, 가정복지학과 등에서는 위의 영역들의 과목들을 고루 배치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또는 생활과학부와 같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련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생활과학대학의 경우 자신의 전공영역분야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지만 교직과 관련하여 6개의 영역을 균형있게 이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정교육과를 제외한 타학과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제외한 타 영역에서는 단지 필수로 한 과목씩만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적 선택으로 인해 실제에 있어서 가정과 교사로 진출했을 경우 교사들의 교과영역지도 능력은 제한되기가 쉽다. 특히 최근들어 교사의 복수전공 권장에 따라 대학에서 학생들의 복수전공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 이는 사범대학 학생들의 경우 복수전공을 할 경우 교사 임용고시에서 가산

점을 주게 되므로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정과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전공과목이외에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가정교육학을 전공하였더라도 교사로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내용을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지에 강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복수전공의 의미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그것과는 너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 교사가 지리, 역사를 복수전공으로 할 경우는 각 전공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공통으로 이수하는 과목이 겹치게 되므로 복수전공을 할 경우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게 된다.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전공자가 식품영양교사, 의류교사, 소비자학 교사, 주거 디자인 교사, 아동학, 가족학 등과 같은 교사 자격증을 복수로 이수할 경우 가정학의 핵심과목과 공통적인 과목을 이수하게 되므로 무리가 없겠으나 현재의 실정은 가정교육과 학생이 수학, 영어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떤 교과목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교육학자들은 전공 교과목보다는 교육학을 핵심과목으로 하고 전공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교육을 통해 충진할 수 있거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전공지식보다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은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교사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3. 기존 교사 교육의 특성과 문제

지난 6차 교육과정개정(95년 5월) 당시의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이 중요한 개혁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 (1)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혁으로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임용 제도의 개선, 교원연수의 강화, 교원의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를 제시하고, (2)능력 중심의 승진·보수 체계로 개선하여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 보수, (3)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조건 조성으로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교무실 사무자동화, 자율 출·퇴근제, 교장 명예퇴직제의 실시 방안이 제시되어, 그 중 일부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기하고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교원연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① 자격연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해 왔던

교육개혁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실천방안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정책에 담고 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시 제시되었던 중등교육개혁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목표는 사실상 교사수급의 문제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7차에서는 축소 조정되었다. 6차 개정 당시의 가정교육계에서 제시한 중학교 수준에서는 남녀 함께 필수적으로 가정·기술을 이수하는 대신 고등학교에서는 가정의 다양한 하위 단위 교과, 예를 들면 식품 영양, 의류, 주거, 소비자, 가정경영, 아동, 가족 등의 교과가 개설되어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박명희, 1995)은 무산되었으며 앞의 제안이 가능할 경우 유사한 교과를 2-3가지 복수로 전공하여 가르칠 수 있는 복수전공 교사의 제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엉뚱하게도 관련이 없는 교과끼리의 복수전공이라는 엉뚱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원래 복수전공교사의 의미는 미국의 중, 고등학교 교사교육에서 나온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 교사가 복수전공을 하여 2-3과목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수학의 경우 산수, 기하, 대수 등의 세분화된 교과를 몇 가지 복수로 가르친다는 의미이지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처럼 미술 담당 교사가 국어나 수학을 21학점의 부실한 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후 학생들에게 국어교사로서 가르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미국의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부터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있어 현재 한국의 대학처럼 자신이 스스로 시간표를 편성하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춘 강좌를 학생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 경우 개설되는 과목은 100-18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된다. 물론 소형의 학교의 경우는 모두 개설할 능력이 없을 경우 주변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개설된 과목을 학생의 수준에 맞춰 수강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경우 교사는 한국의 대학처럼 한 학기에 유사한 2개의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3개의 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유사한 과목(공통 사회와 지리라던가, 공통과학과 물리 정도)이며 영어의 경우 듣기와 쓰기, 또는 말하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를 복수로 가르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30-40여 개에 불과하여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과목중에서 미술교사가 수학을 복수전공 하거나 건축, 기계공학 교사가 기술·가정을 복수전공하여 가르칠 수도 있는 제도로 되고 말았다.

기술·가정교과와 가정교과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기술교사가, 가정은 가정교사가 팀 티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게 이 두 과목을 무리하여 복수전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술관련 교사는 가정교과목을, 가정교사는 기술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복수 자격증을 획득하고 7차에 통합된 가정, 기술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의 뿌리가 다른 두 교과를 통합하는데 따른 부적응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② 직무연수

과거 일반연수는 내용이 한정적이고 교사들의 관심영역별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수프로그램의 제한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일정경력 이상의 교사로서 행정직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사에게 인사고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재로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최근들어 교원의 현직 연수는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고 일반 연수의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사 직무연수는 1999년까지 일반연수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교과 직무연수로 변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도록 되었고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최미선, 윤인경, 2001).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뿐 아니라 교수학습방법도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주기로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강화하며 선택교과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취득한 담당교과 관련 학위와 사회교육기관의 전문과정 이수 결과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직무연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거보다는 일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문제점은 존재하는데 연수기관에서의 연수성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므로 인사고과를 잘 받고자 하는 일부 교사의 경우 동일내용을 연속적으로 이수하여 높은 점수만을 받으려고 고집하거나 점수만을 잘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파행도 일부 존재한다.

가정교과외의 경우 가정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 교사들의 적극적 연수의지는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한 가정학회에서 가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연수를 실시한 결과 가정담당 교사보다는 타 교과담당 교사의 참여의지가 더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기술·가정교과외의 경우 최근에는 가정교사의 기술연수, 그리고 기술교사의 가정부전공 연수를 많이 이수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재교육은 연수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이나 사회교육기관의 전문과정 이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교원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재정적 및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거나 기타 연수기관을 통한 자기개발 노력이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차등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노력하는 교사, 능력 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다.

IV. 가정과 교사 선발제도의 특성과 문제

1. 가정교과 교사의 수요공급

가정 교과의 교사양성은 일제시대부터 제5차 교육과정개정시 까지 중등 여학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존재함에 따라 1970년대 초까지는 몇 개의 가정교육과에서 교사를 배출하였으나 70년대 이후 가정학의 전문화 발전에 따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뿐 아니라 가정대학의 일반학과와 일반 대학의 가정교직과정을 통해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엄청나게 양산되어있는 실정이다. 가정교과의 경우 60년대 후반 교육과정 개정시 당시의 국가정책으로 1인 1기술 갖기의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갑자기 추가된 기술교과부분을 여자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정과 교사가 담당하도록 제도화시킴에 따라 급작스런 가정과 교사의 수요급증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 시기 가정과 교사에 대한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현재의 경우 과잉공급의 양상이 심각하게 되었다. 95년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시 남·여 모두에게 이수시키는 공통과목으로서 비로소 자리잡아감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시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당시의 현직 가정과 교사의 공급과잉부분과 적체현상이 발생하였다. 현직 가정과 교사의 적체현상이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러 교과가 병렬적으로 통합되면서 기술·가정이란 교과로 묶여 버리게 됨에 따라 교사의 수급은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많이 배출했던 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최근 10여 년 간은 가정대학의 교사자격증 이수자의 수도 상당히 제한을 두게 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의 가정교육과는 대부분 다른 학과로 전환시켜 가정과 교사의 배출을 억제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가정교육과의 수는 16개교이며 이 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교사의 수도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가정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사 자격증 이수자 수와 교육대학원을 통해 이수하는 가정과 교사 자격증이수자의 수도 전반적으로 그 수가 줄고있는 실정이다. 가정과 교사는 가정교육과에서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며 식품 영양학, 의류학, 주거학, 가정관리학과 등에서도 배출하기 때문에 가정이 수학이나, 국어처럼 단일 과목이 아니며 이미 통합적 성격을 띤 과목이며 교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전공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교원 임용제도는 자유경쟁의 논리아래 교원 양성기관의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컨소시움을 통해 교사를 선발 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각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선발방식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국·공립 중등학교의 교사는 매년 12월중에 실시되는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채용된다. 교원임용고사는 서울시, 광역시 및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실시하며 시·도 별로 매년 매학년도 교사 수급계획에 따라 일시, 장소, 고사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및 원서제출절차 등에 관한 것을 시험시행 20-30일 전에 공고한다. 교원 임용고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1차는 교육학 및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2차는 논술 및 면접, 수업실기 능력평가 등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식은 교육학의 경우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전공과목은 주관식이다. 2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기 능력평가는 1999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별 세부 계획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수업기자재 활용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합격자결정은 1차 시험의 성적과 대학성적, 그리고 시·도별로 설정한 가산점등을 종합하여 모집 예정인원의 1.2 배수를 선발한 뒤, 2차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시험의 출제 및 관리는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교원임용 공동 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1차 필기시험은 1997학년도 부터는 위탁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시·도 교육청이 채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2차 논술 및 면접, 실기시험은 임용기관인 시·도 교육청별로 주관하여 출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시험의 형태는 시·도 별로 다를 수 있다(소경희, 2000).

2. 교사 임용제도의 문제점

매년 12월이 되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사 자격증 취득자와 졸업생의 경우 그 해의 순위고사 임용인원발표를 보고 시험에 응하게되지만 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사실상 교사임용 고시라는 말처럼 1년, 2년 또는 몇 년 동안 교사임용고시를 위해 도서관을 다니며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응시자들은 그 해의 임용선발인원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떤 경우 1명의 임용자도 없는 경우도 생긴다. 임용인원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무조건 시험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참담하고 비효율적인 교사 수급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가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지나치게 다원화되고 분산되어 교원수급상 엄청난 불균형이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며 교원은 교원수급 정책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수급정책에 따라 일반교직과정이 너무 양산되었다던가 사립사범대학의 축소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또는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다.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오히려 교과내용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사범대학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일반대학교육과정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정체성이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사범대학을 해체하고 전문성과 질적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양성을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결여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형태의 전문직 양성기관의 경우도 양성기관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법과대학의 경우 사법고시, 행정고시 준비를 위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상대의 경우, 회계사시험, 정법대의 경우, 외무고시 등을 위해 사범대학의 경우, 교사임용고시를 위해 학생들은 대학의 수업보다는 학원의 요점정리식 시험대비 강의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양성기관의 모든 관심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함양보다는 선발시험에 기울이게 하는 양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가정교육과의 경우 실상 임용인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교사 임용시험을 보도록 추천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경우의 차선책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순위고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1차의 경우 교육학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사양성기관의 특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시하고 사범대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오히려 말살하고 있었던 셈이다. 1997년도부터 실시한 교사임용제도에서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일부나마 반영하는 면접과 실기시험이 도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박명희, 2001).

3. 기술·가정 교사 양성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1955-1997년)는 '가정'과 '기술'은 분리된 과목이었고 공통점이라고는 가정은 1차에서 5차 교육과정까지는 여학생이 이수하였고 기술 및 산업은 주로 남학생에게 이수시킨 과목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목들의 담당교사는 '가정'은 '가정과 교사'가 '기술'은 '기술과 교사'가 각각 담당하여 지도하여 왔으며 학문적 배경에 있어서도 기술과 가정은 전혀 다른 교과목이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수를 10개로 제한한다는 총론의 원칙에 따라 「기술·가정」을 교과목명으로 하여 통합,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기술·가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5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실과로 2시간, 7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기술·가정」으로 2·3·3시간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6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산업 과목과 가정 과목을 통합교과의 형태를 빌린 병합의 형태로 하여, 두 개의 교과서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합본한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는 '이 두 교과서의 성격상 통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는가'였다. 기술과는 기술학에 근거한 지식 체계의 교과이고, 가정과는 가정학에 근거한 지식 체계의 교과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학문 체계가 통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논리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교과를 완전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두 교과서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상호 관련성이 밝혀진 뒤에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학의 어떤 측면과 가정학의 어떤 측면은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과 가정이 하나의 독특한 형태의 지식 체계로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는 통합이라기보다는 병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두 교과서의 학문 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지도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병합하였고, 극히 일부분 통합이 가능한 부분만 통합하였다(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99). 7차 교육과정 입안에 참여했던 교수진이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도 통합이 아닌 병합으로 교과서 내용도 50:50으로 구성하였고, 현장에서 운영도 기술 교사는 기술 영역을, 가정 교사는 가정 영역을 지도하는 것으로 입안 구성하였다.

기술·가정교과는 내용적으로는 병합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법적으로는 통합교과인 셈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신설된 "기술·가정" 교과 교육을 위한 교원자격증이 "기술"(11-12학년 선택과목), "가정"(11-12학년 선택과목)과 "기술·가정"(7-10학년 필수과목)의 3가지 교사자격으로 결정되었다(교육부 고시<2000-1호, 2000.1.28>). 이어 '기술·가정' 교과의 교원양성을 위해 각 대학의 기존 '가정 교육과'에서 '가정'과 '기술·가정'을, '기술교육과'에서 '기술'과 '기술·가정' 중복 표시하도록 하였다(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추진 요령안내<교육부교양 81834-125, 2000.2.15>).

이처럼 서로 다른 교과를 병렬로 연결하여 "기술·가정"교과라는 명칭으로 남녀 모두에게 이수토록 하는 발상은 사실상 일본의 교육과정을 모델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초부터 기술·가정이란 교과목을 교과목의 수를 많게 하지 않을 명목으로 기술·가정으로 운영해 왔으나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가 기술·가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부분은 기술 교사가, 가정 부분은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팀 티칭의 형식을 취하고 학생은 이 두 부분을 모두 이수하는 형태로 몇 십년간 운영해 왔다. 최근 일본의 가정과 교육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일본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서 기술·가정에서 다루었던 가정교과의 기술적 영역보다는 가정교과의 가정경영 및 가족관계영역의 확장 필요성이 강화되어 기존의 “기술·가정” 교과를 “가정” 교과와 “기술” 교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오히려 10대 국민교과로의 지정이란 단순논리를 위해 두 교과를 한 교과로 통합하고 나니 교사양성의 문제가 사실상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가정교과를 통합 교과로 인정한다면 이에 적절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나 이러한 교과의 성격에 관해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과 더불어 미래의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그램을 가정만이 아닌 기술교과의 전공교과목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학교마다 기술·가정교과의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놓고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놓고 교육환경 속에서 상호 작용함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자원을 유치·선발·확보하여,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신입교사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교사로 하여금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다른 일반직업과 달리 교사직은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과 적성은 장기간에 걸쳐 성취되고 사람을 키워내는 교사직에 있어서는 경력이 어떤 직종에서 보다 요구되는 직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 정책은 교과목이나 교사의 양성문제를 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가정교사는 오히려 기술·가정이라는 기형적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 하기 보다 고등학교 심화 교과목을 진정 선택심화 과목으로 분리하여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

지의 기술·가정에서 가정부분만을 팀티칭으로 가르치고 고등학교 선택심화 과정을 식품영양학, 의류학, 아동발달, 가족관계, 소비자 재무관리 등으로 분리하여 이 부분의 교사자격증을 개발하고 이를 복수전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탐색과목으로서의 선택심화 과정이 진정 심화과정인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가정과학이란 한 과목에 묶여 다양한 분야를 비빔밥 형태로 배우는 것은 교육개혁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가정교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사랑해야 함을 당연히 여겨왔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또 제자를 사랑하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키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해있고 기성세대의 성장배경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인터넷세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키워내는 일은 더구나 어렵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도 변화하고 또 가정생활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현명하게 관리하고 일상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가정과 교육이다. 이러한 가정교과의 교육을 담당할 가정교사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인가? 우선 교사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가꾸고자 하는 긍정적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 탐구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전통적 생활문화를 아끼고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성숙한 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개혁위원회(1995) 제2차 대통령 보고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박덕규(2000) 외국학교의 교사선발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박덕규(2000) 초·중등학교의 교사수급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박명희(1995) 신교육체제 수립에 따른 가정과 교사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1995년 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7권 2호, 125-130

박명희(2000) 기술·가정의 교원양성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교사는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생산물이 아니다- 2000년 동계학술대회 주제발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3권 2

호, 113-120

소경희(2000) 중등학교 교사선발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이연숙(2002)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서울

정진곤(2000) 교사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최미선, 윤인경(2001) 중등학교 가정교과 교사의 직무연수 운영실태 및 인식 조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3권 2호, 85-99

허 형(1995) 대학교육의 개혁방향과 “가정학” 관련학문의 발전모형, 제48차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교육개혁과 가정학’, 1-18

韓國的家政科教育 — 挑戰和展望 —

朴明姬(東國大學校 教授)

一、研究目的

1948年大韓民國政府成立以來，韓國的教育課程經歷了七次的修訂和改革，其教育目標和教育方向也隨之持續地改變。但是在改革的過程當中，是否充分地考慮了符合每個時期教育課程的師資的培樣和研修，且有待於我們深思。

此論文，通過考察韓國的家政和師資培養的歷史發展過程，從宏觀的角度分析師資的培養應怎樣去適應和借鑒隨着社會的發展變化而改變的家政教育課程。并通過對現狀的剖析，來思考可行的解決問題的方案。

二、家政教育課程與教師培養，任用制度的變化

起用第四次教育課程的1987年為止，家政課只有女生選修。起用第五次教育課程的1987年開始，家政、技術、家政·技術課在以男女生共修的原則下，每個學校根據本校實情由校長來靈活開課。

1992年開始起用的第六次教育課程，改革為技術·產業課和家政課由所有男女生共同必修。第七次教育課程，通過改革把所有家政類課合并成科目名為“技術·家政”的一門課，并把它編入到國民共同十大基本科目之中。有史以來，在韓國家政課教師由師範大學的家政教育系負責培養。全國開設家政教育系的大學有20多個。從1950年到1970年為止，國立師範大學採取扮發獎學金的優待措施，吸引優秀人才來到師範大學就讀，并培養了品學兼優的優秀予備教師。他們被分配到全國各地任教，教育質量也隨之提高。但是，由于私立大學也開始開設師範學院，從1980年開始取得教師資格證書的人數猛增，但是教育一線的教師需求量却沒有增加，這就導致了師範大學畢業生的就業困難。而且，從90年代初開始，國公立學校的教師通過任用考試公開競爭招聘。

從現行的家政教育體系來看，分類為家政類學科的家政教育系，家政系，家政管理系，食品營養系，服裝系，等系的學生修學取得教師資格證書所必須的科目(6個領域)之后，既可以拿教師資格證書。(從90年代開始，政府為了控制教師資格證書獲得者的人數，規定家政類學科之外其他學科的畢業生只有一定人數能選修教職課程。)

三、家政課教師的教師教育

拿到資格證書，通過任用考試合格之后到教育一線的教師接受進修的機會并不很多。近年來，由于家政類科目的合并，很多家政課的教師通過進修取得技術課教師資格證。崗位進修比以前開展得比較自由靈活，但是還是不那么樂觀。其原因在于對接受專業進修和崗位進修的教師的鼓勵政策跟不上，再有教師的進升機會也不太多。

四、家政課教師選拔制度的特点與存在的問題

持有教師資格證書也是任用考試通過之后才能正式起用為國公立初·高級中學的教師，但是，任用考試的競爭却非常劇烈。現在教育一線的家政教師需求量又不太多，因此大部分家政教育系的畢業生邊當短期教師或臨時教師，邊準備任用考試。但是由于招聘人數有限，前途不那么明亮。

特別成問題的是，由科目合并而引起的教師培養。從法律上看，“技術·家政”是一門課，但是從內容和學科的發展淵源來看，這兩門學課很難融合到一起。所以，實際上是以協同講授的方式技術課由技術教師來講，家政課由家政教師來講的現象在教育一線到處可見。為了緩和這種局面，在線的家政教師通過進修副修技術專業，技術課教師又副修家政專業。但是由于師範大學的家政教育系根本不存在技術·家政專業，所以很難副修第二專業。据此，很多人對家政課的合并持不樂觀的態度。這可能是韓國家政教育學界未來要解決的難題。

〈要 約〉

韓國の家政科の教育 — 挑戦と展望 —

朴 明 姫(東國大學校 教授)

1. 問題の提起

韓國の教育課程は、1948年以後7回にわたって改正されてきた。しかし、その都度、教育課程に應じた教師の養成ができたとは評價できない。この研究では、社會の變化や家政科の變化に應じて、望ましい家政科教師の養成について考察する。

2. 家政科の教育課程の變化と教師養成のための教員免許制度の變化

1987年の4次教育課程まで、家政科は女子生徒だけの科目であった。その後5次教育課程改正から、家政・技術、技術・家政の科目を男女共に選擇するようになった。また、6次教育課程では、技術・産業と家政を男女共に必修科目とし、第7次課程では、技術・家政の形で國民共通基本10科目の中に含まれるようにした。

傳統的に韓國の家政科教師は全國の20大學の師範大學が擔當してきた。また、1950年から1970年までは、國立師範大學が優秀な生徒に奨學金を與えて、優れた教師を養成することで、教育の質を高める政策もとってきたが、1990年の初めから國公立學校の教師は、教員免許試験を通じて採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現在、家政科の教師は、家政科関連の家政教育科、家政科、家政管理學科、食品營養學科、衣類學科など、各分野別に科目を履修し、教師免許をとることになっている。

3. 家政科教師の教育

免許を取った後、教師が現場に入ると、實際には専門関連の研修を受ける機會は多くはない。最近、家政科の教師が受ける研修のほとんどが、専門外の技術科目であるのも、それを如實にあらわしている。資格関連の研修は別として、専門関連の研修は自由に選擇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が、活發に研修をしていない現状にある。これは、専門関連の研修と大學院に進學する教師に對して、あまり利益がなく、昇進の機會もないからである。

4. 家政科の教師の先發制度の特徴と問題

家政科教師は、資格を持っていても、教員免許試験を受けなければ、國公立中・高校の教師になることができず、また、その試験も大變難しい。現在は、家政科教師の需要は少ないので、免許試験を目指して何年も努力する者も多い。特に今、韓國で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技術、家政科目が統合してからの教員養成である。法律的には二つの科目を統合して一つの科目にしたわけだが、内容的には無理がある。そのため、現場の教師たちは、技術分野は技術教師が、家政分野は家政教師が擔當し、それぞれの不専門科目の研修を受けている。

また、大學においても、技術・家政教育科はなく、技術教育學科も少ないため、複數専攻も不可能な状態である。そのため、この二科目の統合に對して、とても懷疑的であり、重要な問題となっている。

「한국의 가정과 교사교육 - 도전과 전망-」에 대한 토론

한 규 숙(경기도 수일여자중학교 교장)

I. 들어가는 말

항상 학회 세미나에 참가할 때에는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진 영원한 청중으로 부담없이 왔는데, 이번 세미나의 주제 「가정과 교육과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중 박명희 교수가 발표한 「한국의 가정과 교사교육」에 대하여 토론을 맡게 되어 세미나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사의 장이 중등학교이고, 중등학교에서 가정과 교사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1995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1995.7.25)에서는 「신교육체제 수립에 따른 교사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중등교육의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과 중등교육개혁에 따른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전망하고, 교사 양성 임용제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교양과목으로서의 가정일반 자격증 외에 고등학교의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식품영양 교과, 의류학 교과, 아동학 교과, 가정관리 교과, 소비자교육 교과 등의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복수전공 하게 하거나 가정계열학과 학생들이 전공계열과 연계하여 2~3개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원들도 대학원과정이나 사회교육기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한 전문과정 이수 등의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며,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능력있는 교사가 인정받는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0년 동계학술대회(2000.11.25)에서는 「기술·가정의 교원양성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교사는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생산물이 아니다 -」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그 해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0개로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정을 기술과 합하여 “기술·가정”이라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기술·가정” 표시과목 자격증을 신설하여 이 자격증의 취득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부실한 부전공연수를 강행하여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었는데 복수전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부실한 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주제인 우리 나라 가정과 교사의 양성제도와 교사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일관성있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함으로써 어려울 때마다 가정과 교사들을 지원한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II. 본 주제에 대하여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가정교과는 여학생만 이수하는 교과였으나 제5차 교육과정부터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 중에서 남녀 구분없이 학교장이 선택하여 이수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산업과 가정을 공통필수로 모두 이수하였으며 신교육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한 교과로 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편입되었고(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양성과 임용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체계는 절충형으로서 교사양성을 위한 특별기관(사범대 가정교육과 등)에서 양성하는 교사와 가정과 관련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가정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가 있는데, 80년대 이후교직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급증하여 점차 임용고사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교직이수자의 자격증 취득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지나치게 다원화되고 분산되어 교원수급 상 엄청난 불균형이 있으며, 교사 임용고사는 매년 12월이 다 되어야 그 해의 선발인원을 알 수 있는데 그 수가 소수이거나 없기도 하여 매우 비효율적인 교사 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교원양성기관의 질 향상과 함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원임용방법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1차시험이 교육학과 전공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므로 다양한 체험이 중요한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정과 교사의 자격증은 학력과 경력, 재교육 등에 따라 중등학교 가정과 1급 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 자격증이 있고, 보통 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시작하여 5-10년 이내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을 이수하면 1급 정교사자격을 획득하는데, 기존교사의 경우 교육개혁 발표 시에는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높인다하여 가정과의 다양한 하위단위 교과 예를 들면 식품영양, 의류, 주거, 소비자, 가정경영, 아동, 가족 등의 교과가 개설되어 유사한 교과의 복수전공 기회를 기대하였으나 미술교사가 수학을 부전공하거나 건축, 기계공학 교사가 기술·가정을 부전공하는 등 엉뚱한 다른 교과간에 복수전공을 하게 하여 교사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특히 가정과의 경우에는 교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기술·가정”포시과목 자격증이 신설하고, 교과의 뿌리가 전혀 다른 가정과와 기술과와 통합한 “기술·가정”교과를 모두 지도하라고 단기간의 “기술·가정”부전공연수를 추진하였으나, 가정과와 기술과 교사들의 강한 반발로 중단하고 가정교사는 기술 부전공 연수를 기술교사는 가정 부전공 연수를 받게 하고 있으며,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할 때 기술과 영역은 기술교사가 가정과 영역은 가정교사가 담당하는 팀티칭을 권장하게 되었으며,

기존 교사의 교육은 자격연수이외의 연수를 직무연수로 통합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교사의 연수의지가 높지 못함과 연수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함에 따라 교과 지도에 필요한 내용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를 선택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대학원 학위 취득이나 사회교육기관의 전문과정 이수 등에도 재정적·시간적 지원을 하며 자기계발 노력이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야 노력하고 능력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정과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등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과목만 이수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교과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복수전공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복수전공의 영역이 사회과에 지리, 역사 등 전공영역에서 핵심적으로 공통이수 하는 과목이 겹치도록 하는 외국처럼 가정 전공자에게 식품영양, 의류, 소비자학, 주거 디자인, 아동학, 가족학 등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핵심영역이 전혀 다른 수학, 영어 등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떤 교과목도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부족한 교사를 생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서로 다른 교과를 병렬로 연결한 “기술·가정”교과는 통합교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학에 따라 “기술·가정”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가 유보상태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하는 바, 가정교과는 특히 영역이 방대하여 장기간의 경험과 연수가 필요한 교과이므로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할 때 가정교사는 가정부분만을 팀티칭으로 가르치게 하고 가정과학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 선택심

화 과정을 식품영양학, 의류학, 아동발달, 가족관계, 소비자 재무관리 등으로 분리하여 교사자격증을 개발하고 복수전공하여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직업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가정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자격증, 가정과 교사 양성과정, 임용제도 및 교사 수급, 현직 교사의 재교육(연수) 그리고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에 대체로 뜻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부연하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가정과 교사 교육이 되어야하겠습니다. 21세기 유망직종이라고 하는 의상 디자인, 조리, 제과 제빵, 노인관련업, 미용, 유아 교육 관련업이 모두 가정과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을 보아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문서상으로만 가사·실업계로 되어 있고 가정과 교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습니다. 가정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중등학교 자격증 표시과목은 「가정, 기술·가정, 식품가공, 디자인·공예, 의상, 관광, 조리, 미용」인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와 관련된 교과는 보통교과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가정 과학이 있고 가사실업에 관한 전문교과로는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의복 재료·관리, 복식 디자인, 한국 의복 구성, 서양 의복 구성, 홈 패션, 편물, 한국 무늬, 자수, 주거,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디스 플레이, 유아 교육 원리, 유아 생활 교육, 유아 놀이·표현 지도, 관광 일반, 여행 업무, 호텔 업무, 관광 조리, 노인 생활 지원, 헤어 미용, 피부 관리, 공중 보건,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얼마나 가정과 교사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과에서 지도하던 예절교육이 어느 사이에 가정과에서 사라지고 도덕과에 훨씬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절 등의 인성교육에 가정과가 중요한 교과라고 주장할 때 다른 교과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예절교과서 검토위원으로 가정과 교사를 추천하였더니 정보산업고등학교의 관광과에서 쓰이는 책이라고 상업선생님으로 교체된 적이 있습니다. 조리고등학교가 사립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교되어 가정과 선생님들의 자리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아니었습니다.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산학겸임교사를 1/3 이내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사의 영역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정 관련 자격증을 세분화하여(급식관리,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이요법...) 부전공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과 교사들이 시간과 예산의 지원 하에 연수를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 중에는 산업현장

실무연수가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너무 서둘지 말고 학교와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사의 양성기관에서도 발표자의 제안대로 가정과 하위 영역의 다양한 자격증이 개발되고 복수전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가정과 교사의 참여도를 보고 연수 의지가 높지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가정과 교사의 연수의지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사들은 연수 점수에 상관없이 기술연수부터 시작하여 꽃꽂이, 예절교육, 다도교육, 재봉, 가족계획, 컴퓨터연수 까지 자율연수를 받아왔고, 최근 몇 년 전에는 승진에 필요한 일반연수 성적이 연수내용에 관계없이 60시간 이상의 연수 3개로 느는 바람에 일반연수 3개를 채우느라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과관련 일반연수 강좌는 별로 개설되어있지 않았으며 부실한 연수기관이 난립하였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교사들 중에는 같은 연수를 수차례 반복하여 이수하기도 하여 교육현장을 어렵게 하므로 연수에 대하여 제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한국교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성교육의 연수가 시작될 때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많은 교사들이 성교육 연수를 받고 난 뒤였고, 많은 가정과 교사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내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기술(기술·가정)부전공연수를 받느라고 쉬지 못했습니다. 학생 선택이 줄어들어 과원이 된 제2외국어 교사들에게 일본어 부전공 연수를 실시할 때 1년간 한국교원대학교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것처럼 기술 연수도 장기연수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사들은 여건만 되면 어느 교과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정과 교과연구회의 경우 처음 교과연구회를 만들 때는 교육청 담당자가 가정과를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가정과 장학사가 강력히 주장하여 겨우 조직되었는데 다른 교과와 같은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니가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하였고 가정과 교사들에게 도움을 되는 많은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지금까지도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교과연구회로 자타가 모두 인정받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육아와 가사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가정의 역할 변화는 더디며, 같은 여성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사는 어느 교과보다 가정과 학교생활과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사 임용고사 제도에서 1차시험을 필기시험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가정과 과목의 이수 학점,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관련 기관에서의 연수 및 활동 등을 고려하여 1차선발을 한 뒤에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대학

과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증 중 행정 편 의상 급조한 기술·가정 표시과목 자격증 등은 제외하고 교과와 전문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가정과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등에서는 교육현장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교육정책을 세우는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고 연수를 하는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이루어 질 때 가정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학회보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세미나에 중등교원들이 적극 참여해 온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가정과 수업을 진행할 때 기술과와 가정과 교사가 팀티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중등학교에서 보면 교사수급이나 교육과정상의 시간 배당 문제로 팀티칭은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워(기술·가정이 8-10학년에 3시간으로 되어 있음) 교사의 교과 전문성 결여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50학급이 되는 대규모학교에서 학생의 희망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이동 공간의 여유가 없으며, 아직도 학교가 학생의 교내외 모든 생활을 지도하고 무한 책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대학이나 외국처럼 자유롭게 교과를 선택하는 제도를 접목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6차, 제7차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것은 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입니다. 무수한 과제를 발표하고 시·도간 평가 실시하여 교육현장을 획일화하고 비교육적으로 만들었으며, 일부 평가위원 중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교육 현장을 어지럽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현장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원출신 전문직의 수가 학교 수가 증가하는 비율로 증가하여 학교 현장을 도와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 뒤에 추진하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 대부분의 여학생에게는 320점만점 중 가정 20점, 가사 20점으로 2과목 40점이 되어 입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교과였습니다. 그 당시 가정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과와 직접 관련없는 일도 많이 하였지만 가정과교사는 여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사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가사 한 과목으로 줄었다가 90년대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정과가 아주 제외되고 난 뒤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선택교과로 채택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뒤 이어 6차교육과정을 시작되면서 중학교에서조차 단위시간이 현저하게 줄어 가정과 교사들의 수난이 시작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과로

서 중등학교에 잔존하기가 당분간은 너무 힘들 것이므로 대학입시에서 많은 영역이 반영되는 교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Ⅲ. 맺는 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률 증가로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자녀 양육문제 청소년문제 노인 문제 등 가정문제의 심각성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가정생활과 가정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과 교육과정과 가정과 교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될 때 가정과가 없어질 뻔하였는데 대학에서 중등과 연계하여 가정과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중등에서는 교과연구회 활동, 자율 연수 등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가정과 교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많은 활동이 가정과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들에게 교육 받는 학생들의 미래에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으며 필요한 시기마다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발전 방향과 대책을 수립하여 가정과 교사들과 함께 하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 감사 드립니다.

〈要 約〉

關於「韓國的家庭教育 — 挑戰和展望 —」的討論

韓 圭 淑(京畿道 隨一女子中學校 校長)

本人對作者在論文中所提出的以下几个方面內容持大致相同的意見。即，課程編制上，教師上崗資格證問題上，家政課教師的培養與聘任上，教師的補聘與任用上，在職教師的進修等等。

家庭教育應是為未來社會積極準備的教育。人類社會已經進入了21世紀，社會的變化引起了教育領域也發生了翻天覆地的變化。在家政教育領域中，服裝設計，烹調，制餅，老人看護，美容，幼兒教育等專業成了最熱門的專業。在職業高中，對這一領域的升學競爭也非常激烈。但是，很多在職教師並沒有具備這一領域的專門知識，無法教學生這一領域的知識。我認為教師進修機構，教師培養機構和有關教育機關應采取措施去解決這一方面存在的問題。例如，在職教師通過副修的方式，在校生通過選修第二專業的方式等。也可以採取到企業學習這一方面的知識。為了進修的順利進行，通過各方面的協調，時間上，財政上應給予必要的支持。

家庭課教師的絕大部分是女教師。由於這一客觀原因，很多女教師在處理家庭和學校的關係上感到困難。尤其是在幼兒教育上有苦衷。政府應體諒女教師的這一苦衷，採取特殊措施，給予支持。以便女教師安心地去從事教育事業。

台灣的教師採用過程的第一階段是考筆試。對此，本人認為在考筆試前，有必要先考察以下內容進行選拔之後，再考筆試。如，考察有關資格證的取得與否，進修業績，有關家政學科的學分等等。

大學承擔為家政教育指出客觀方向的任務。而中等學校則承擔了解教育現狀的任務。以便制定教育政策，開發教育課程，編寫教材·參考書，進行教師進修時充分反映教育一線之聲。為此，應讓在職教師在教育部行政人員編制中占一定的比率，並使之跟學校增加數成正比。以便在制定教育政策時，充分體現教育一線的意見。

改革升學考試制度，讓家庭課成績充分反映在升學考試上。

〈要 約〉

「韓國の家政科の教育 - 挑戦と展望 -」についての 討論

韓 圭 淑(京畿道 隨一女子中學校 校長)

韓國の家政科教育課程、免許の問題、家政科教師の養成及び免許制度、教員受給、現職の教員の研修、技術・家政教科に對しての意見に同意しながら付言する。 について考察する。

未來の社會を積極的に準備する家政科の教員の教育をするべきである。 21世紀の有望な職種である衣裝デザイン、調理、製菓・製パン、老人関連業、美容、幼兒教育の関連業などが家政科の領域である。 新しくできた家事・實業界高校への入學競争力の激しさとは異なり、家政科の教員は専門性を持って指導するには、準備の足りない状態にある。 したがって、家政科教員の免許を細分化し、不専門の研修のプログラムを開発して現場の教員に複数専門を取る機会を與える。 その時、教員の研修に十分な時間的・財政的な支援を行い、十分な研修になれてほしいである。(?)

大部分が女性であり、家庭生活を指導する家政科の教員は、どの教科より家庭と學校の生活との調和を維持しながらも様々な葛藤もある。 教育活動に専念できるように國レベルの支援が欲しい。

家政科の教員の免許制度の試験を改善し、まず家政科目の履修単位、関連資格證、関連機關での研修及び活動などを見て、1次先發をしてから筆記試験を実施してほしい。

大學では家政科教育のビジョンを表し、現場の中等(?)では教育實情を正しく理解して教育政策を決定するのに意見を主張する必要がある。 そして教育課程を開発し、教授・學習の資料を作り、研修を行うなどの活動を續けて実施する。

また、教育部では現場の教育の經驗豊富な教員の数が増えるように、學校の現場を支援する政策を作るようにし、新しい教育課程を始める時には充分検討したうえで、実施してほしい。 なお家政科の成績が大學入試に反映されるように入試制度の改善にも氣を付けたい。